

손흥민, 햄스트링 부상 회복  
4월 4일 뉴캐슬전 출전 유력



손흥민(29·토트넘)이 컴백 준비를 마쳤다. 영국 매체 풋볼런던은 30일(한국시간)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던 손흥민이 2주간 휴식을 취했다. 컨디션도 나쁘지 않다. 경기 출전이 가능해졌다"고 보도했다. 예상되는 복귀 무대는 4월 4일 세인트제임스파크에서 뉴캐슬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치를 2020~2021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원정경기다. 풋볼런던은 "뉴캐슬 원정에 출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손흥민은 15일 아스널과 '북런던 더비' 원정경기 도중 허벅지 통증을 호소하며 주저앉았다. 해리 케인과 함께 선발출전한 그는 전반 17분 토비 알더베이럴트의 롭 패스를 받으며 스피린트를 하다 햄스트링에 무리가 왔다.

결국 손흥민은 디나모 자그레브(크로아티아)와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16강 2차전, 애스턴 빌라와 EPL 원정경기에 불참했다. 결국 원정 한 일전(25일)도 건너뛰었다. A매치 출전 대신 휴식을 취했다. 토트넘 조세 무리뉴 감독은 "클럽에서 뛰지 못하면 A매치에도 나설 수 없다"고 말했다. 대한축구협회에 상황이 통보됐다.

다행히 A매치 휴식기가 보약이 됐다. 휴식과 재활을 병행하며 컨디션으로 끌어올렸다. 토트넘에는 천군만마다. 토트넘은 29경기에서 14승6무9패, 승점 48로 6위에 올라있다. 현실적 목표는 다음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이 주어질 4위권 진입이다. 현재 4위 첼시(승점 51)와 격차는 크지 않다. 남정현 기자

'EPL 외국인 최다골' 아구어로, 맨시티 떠난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외국인으로는 가장 많은 골을 터트린 세르히오 아구어로(33·아르헨티나)가 올 여름 맨체스터시티를 떠난다.

맨체스터시티는 30일(한국시간) "올 여름 계약이 끝나는 전설적인 공격수 아구어로와 감동적으로 작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구어로는 2011~2012시즌부터 이번 시즌까지 10시즌 연속 맨체스터시티에서 활약했다.

2003년 인데펜디엔테(아르헨티나)에서 프로 경력을 시작한 아구어로는 2006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스페인)를 통해 유럽무대에 진출했고, 2011년부터 맨체스터 시티 유니폼을 입고 전성기를 구가했다. 지난 10시즌 동안 통산 384경기에서 총 257골을 터트리며 EPL 최고의 공격수 중 한 명으로 군림했다. 또 EPL에서만 271경기에서 181골을 넣어 역대 개인통산 득점순위 4위에 올라있다. 외국인선수들 중에선 역대 최다득점자다. 최현길 기자 choi92@donga.com

벤투 감독, 최고의 컨디션으로 복귀시킨다지만...

'한일전 후유증'이 두려운 K리그

격리 끝나는 4월2일 리그 재개  
손발 맞춰보지 못하고 뛰어야  
완패 무너진 멘탈 회복도 과제  
감독들 "정신적 피로 상당할 것"



파울루 벤투 감독을 비롯한 축구국가대표팀 코치들이 파주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에서 선수들의 훈련을 지켜보고 있다. 일본과 원정 A매치에 출전한 선수들은 현재 NFC에서 코호트 격리를 거치고 있다. 사진제공 | 대한축구협회

10년 만에 펼쳐진 한·일 친선 A매치(25일·요코하마)에서 굴욕적인 0-3 참패를 당한 축구국가대표팀은 경기도 파주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에서 코호트 격리를 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르면 해외 입국자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오더라도 2주간 자가 격리를 거쳐야 하지만, 대한축구협회가 정부 및 방역당국의 협조를 구해 1주일간 코호트 격리 후 2주째에는 동선을 최소화해 소속팀의 훈련 및 경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 원정에 참가한 코칭스태프 및 지원인력, 선수들과 함께 파주 NFC에 머물고 있는 파울루 벤투 감독(포르투갈)은 평상시 A매치 주간 때처럼 일과를 보내고 있다. 다만 팀·부분전술훈련보다는 회복, 컨디션에 초점을 맞춘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해 선수들을 관리하고 있다.

이유가 있다. 선수들을 클럽 사이클에 맞춰주기 위해서다. 2018년 8월 취임한 벤투 감독은 과거 크루제이루(브라질), 올림피아코스(그리스), 충칭 리판(중국) 등 프로팀을 지휘한 경험을 갖고 있어

별다른 어려움이나 혼란은 없다. 그레도 변수는 있다. K리그는 4월 2일 재개되는데, 대표팀의 코호트 격리는 이날 해제된다. 일본 원정을 다녀온 대표선수들은 결국 소속팀에서 동료들과 손발을 제대로 맞춰보지 못한 채 이번 주말 경기에 나서야 할 수도 있다.

벤투 감독은 대표팀 관계자를 통해 "격정하지 말라. 최적의 몸으로 무사히 팀에 보내주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지

만, 구단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특히 한·일전에 가장 많은 7명(김인성·이동준·이동경·원두재·김태환·홍철·조현우)을 내준 울산 현대는 파주 NFC로 선수단 버스를 보내 편안한 복귀를 도울 것이다.

고민은 또 있다. 무너진 멘탈을 회복하는 작업이다. 대표팀은 일본 원정에서 처참하게 무너졌다. 후반 교체 투입된 골키퍼 김승규(가시와 레이솔)의 슬한

선방이 아니었다면 더 많은 실점을 했을 수도 있다. 소속선수를 대표팀에 빼줬던 K리그 한 팀의 감독은 "역대 최악의 참사를 경험한 만큼 일본 원정에 나선 선수들의 정신적 피로가 상당히 클 것이다. 차분히 몸과 마음부터 정비하라"는 당부도 전했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이른 기역을 떠올리지 않고 심적 안정부터 찾았으면 한다"고 바랐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13개국에 전해진 'K리그 성공적 방역'

'K리그 컨버세이션스' 영상 배포  
브라질전 90만 조회수 '홍보 토크'

한국프로축구연맹이 K리그 그라운드 방역을 전 세계에 홍보하고 있다. K리그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철저한 방역 하에 5월 8일 개막하며 지구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리그 운영은 빈틈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깔끔했다. 매뉴얼 또한 여러 나라에서 문의할 정도로 꼼꼼했다. 시즌을 무사히 마치면서 좋은 평가도 들었다.

연맹은 이를 홍보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

터 선수 인터뷰를 담은 홍보 영상을 만들었다. 제목은 'K리그 컨버세이션스(CONVERSATIONS)'다. 연맹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리그를 운영한 K리그 대응 매뉴얼을 홍보하고, K리그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반적인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외국인 선수의 시선으로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연맹은 30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K리그 컨버세이션스의 영상 조회수가 300만 회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 영상에는 외국인선수 5명과 강상우(포항 스틸러스) 등 총 6명이 출연했다. 외국인선수들을 내세운 것은 국제적으로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기획한 'K리그 컨버세이션스'의 영상 조회수가 300만 회를 넘어섰다. 영상으로 K리그의 방역 성과를 전하는 강상우(포항 스틸러스). 사진제공 | 한국프로축구연맹

3분 분량 6편으로 구성된 이 영상은 영국의 축구전문 플랫폼 덕아웃(DUGOUT)이 제작했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재정적 후원을 했다. 덕아웃은 지난해 K리그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K리그 하이라이트 등 다양한 영상을 제작

및 배포하고 있다.

영상은 K리그 소셜미디어(SNS)와 유튜브 채널을 비롯해 덕아웃 SNS와 유튜브 채널, 그리고 덕아웃과 제휴한 해외 언론사 웹사이트 33개에 배포됐다. 브라질, 독일, 영국, 미국 등 총 13개국에 노출됐다.

가장 많이 시청한 국가는 브라질이다. 브라질에선 90만 회 넘는 조회수가 기록됐다. 연맹에 따르면, 덕아웃 파트너사들 중 브라질 기반 미디어가 가장 많다. 태국(42만483회), 베트남(31만382회), 중국(30만484회)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번 영상 제작으로 자신감이 붙은 연맹은 "향후 리그와 선수 소개뿐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사회를 알릴 수 있는 여러 콘텐츠 제작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현길 기자 choi92@donga.com

▶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막힌 속을 확 풀어드립니다.

**구워먹는 치즈 (자연치즈)**

# 이동식 무빙샵 운영점 모집!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 오픈!!

장사 밀천도 없고 생활이 어려워,  
뭘 할지도 의욕은 있으나, 방법도 모르고  
경험이 없어, 길을 못 찾고 있다면, ?

확실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현장을 직접 보세요.

청년창업 / 주부창업  
시니어 창업

(실속형 무빙샵 운영점)  
누구나 손쉽게 운영할 수 있는 확실한 수익창출

(조립식 카트형 점포)

여성 홍보요원 대모집  
(아쿠르트아줌마 수익과 비교)

- 할부렌탈, 임대도 가능
- 투잡, 샅인 샅도 가능

지역총판 및 판매점 모집  
확실한 수익 창출

가게가 저렴하고 맛있는 구운 치즈로 한번고객은 단골 고객 손쉬운 확보

(삼륜 전동차형 점포)

자연에치즈 상담문의 1877-7762

- 부산총판 : 010-2228-4914
- 대구총판 : 010-5181-6700
- 김포, 고양총판 : 010-8336-7466